

프랑스의 노예제 기억과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Mémorial ACTe〉*

이 가 야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국문초록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프랑스의 기억문화는 노예제 폐지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에서 점차 노예제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겪었던 삶의 역사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1998년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통의 역사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해외영토 대중들의 사회운동에 의해 이러한 물결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해외영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의 뿌리가 되는 노예제에 대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2001년 ‘토비라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로, ‘노예제 기억위원회Le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esclavage’가 출범하였고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프랑스 본토 및 해외영토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15년 개관한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가 건립되기까지는 노예제와 그것의 폐지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 및 법·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메모리알 악트〉의 설립과 정에서 어떤 논쟁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며,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이 이 기념관의 건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 기념관의 홈페이지에는 〈메모리알 악트Mémorial ACTe〉라는 명칭이 과거 노예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그것에 대항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아프리카인들의 저항 행동을 뜻하며, 이후 과들루프 등 서인도제도에서 형성된 크레올 문화가 지금도 생성되고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에도 ‘행동하는 기억mémoire en action’임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의적 의미를 가진 기념관 명칭을 자의적으로 번역하는 것 보다는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 〈메모리알 악트〉라는 기념관의 명칭은 프랑스어 그대로 표기할 것이다: <http://memorial-acte.fr/le-memorial-acte/la-genese>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주제어 : 노예제, 노예제 폐지, 메모리얼 악트, 문화적 기억, 알라이다 아스만

들어가며

프랑스령 서인도제도는 서아프리카-유럽-서인도제도라는 삼각형 형태의 노예무역Commerce triangulaire을 대표하는 얼룩진 역사를 안고 있다. 1848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후로도 오랜 세월동안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서인도제도의 흑인들은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를 시작으로 20세기 내내 다양한 흑인 담론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흑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¹⁾. 그러나 흑인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에 비해 노예제 담론은 오랫동안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했다. 노예제가 흑인 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가했으며 아프리카로부터 서인도제도로 이식되어 노예 노동자가 된 흑인들이 프랑스 경제와 문화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나아가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노예제를 폐지한 날을 기념하는 수많은 정부 행사의 초점은 노예무역을 자행하고 노예제를 실시했던 ‘억압자’ 프랑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한 ‘해방자’로서의 프랑스에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노예제에 대해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었다는 것²⁾

1)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을 시작으로 크레올리테Créolité, 앙티아니테Antillanité 등의 문화 정체성 이론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화 정체성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논의를 통해 문학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화이론의 변이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줄고, 「카리브해 지역의 혼종적 정체성: 마리즈 콩데의 *Victoire, les saveurs et les mots*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48집, 2014; 줄고, 「네그리튀드에서 앙티아니테로: 마리즈 콩데의 자서전 읽기」, 『불어불문학연구』 106집, 2016; 박주식, 「크레올 시학: 에두아르 글리상과 카리브 군도의 탈식민 문화 정체성」, 『비평과 이론』, 제21권 3호, 2016 가을, pp.175-205.

2) 흑인들은 봉기나 혁명을 통한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통한 저항을 했을 뿐

을 기념하기보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그레구아르 신부 Abbé Grégoire, 빅토르 쉘셰Victor Schoelcher와 같은 프랑스인들의 계몽적이고 선구자적인 행적을 추앙했다. 프랑스의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기념하던 1998년에는 프랑스 곳곳에서 공식적인 정부 행사가 4월 23일부터 5일 동안³⁾ 펼쳐졌다. 동시에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1999년 초까지 서인도제도 등 프랑스 해외영토의 문화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노예제 역사를 그전까지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편 1998년 5월 23일에 프랑스에 거주하던 서인도제도 사람들의 주도 하에 파리에서 노예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진 행사가 시작되었다. 노예제에 대해 희생자들의 후손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향후 노예제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 전과는 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1년에는 ‘토비라 법Loi Taubira’이 시행되어 노예제가 반인류적 범죄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2004년에는 ‘노예제 기억 위원회Le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esclavage’가 구성되어 노예제 폐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노예제 자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에서의 노예제 담론은 노예제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함으로써 노예제 기억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집단적 기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예제 박물관-기념관musée-mémorial⁴⁾이었고, 18세기에 노예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보르도와 낭트에 노예제를 기억하고 역사교육을 실행시키는 박물관

아니라,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업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 나아가 농장으로 부터 도주한 노예들이 서인도제도를 방랑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 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저항했다: James Walvin, *Questioning Slavery*, Routledge, 1996, pp.117-135; 염운옥, 「기억의 과잉, 기억의 부재」, 『서양사론』 제 110호, 2011, p.314에서 재인용.

3) 프랑스에서 1848년 4월 27일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쉘셰 법령décret Schoelcher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매년 4월 27일에 기념식이 열린다.

4) 기념관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유한 박물관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박물관-기념관은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이라는 틀 안에서 물질적으로 다룬다는 특성을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개인적인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대중적인 의미의 기억과 추모의 장소로서 박물관이 기능하게 되면서 생겨났다: 도미니크 플로, 김한결 옮김, 『박물관의 탄생』, 돌베개, 2014, pp.279-280.

관⁵⁾과 기념관이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생겼다. 그리고 2015년에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Mémorial ACTe>가 개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기념관은 ‘서인도제도 노예무역과 노예제 기억 및 표현 센터Centre Caribéen d’expression et de mémoire de la Traite et de l’esclavage’로서 프랑스 국내가 아닌 해외영토⁶⁾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개관식에 참석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념관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여기에 결산해야 할 유일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류를 진보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해방과 존엄성이라는 가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 존엄성을 지닌 삶을 빼앗겼던 어린이들, 여성들, 남성들의 여러 세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류의 진보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⁷⁾

올랑드 대통령은 <메모리알 악트>를 통해 노예제를 기억하는 장을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했던 노예들과 그 자손들의 역사가 그들이 고통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기억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이러한 인간성 말살 정책이나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5) 보르도와 그 지역 역사박물관인 아키텐 박물관Musée d’Aquitaine 내에 노예무역 상설관을 개관하여 18세기에 보르도가 프랑스의 두 번째 큰 노예무역항이었던 역사를 알리고 노예제에 대해 전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6) 현재 프랑스는 Guadeloupe, Martinique, Guyane, Réunion, Mayotte, Polynésie Française, Saint-Barthélemy, Saint-Martin, Saint-Pierre-et-Miquelon, îles Wallis et Futuna,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Nouvelle-Calédonie,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TAAF)로 구성된 12개의 해외영토를 전 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

7) “Nous avons ici la seule dette qui doit être réglée, c’est de pouvoir faire avancer l’humanité ; c’est ce que ce mémorial nous rappelle au nom de nos valeurs, au nom de nos valeurs d’émancipation et de dignité et encore davantage au nom des générations d’hommes, de femmes, d’enfants qui furent privées d’une vie de dignité. Au nom de la mémoire, nous devons faire vivre l’espérance pour l’avenir de l’humanité.”: <http://discours.vie-publique.fr/notices/157001286.html>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들루프에 <메모리알 악트>가 건립되기까지는 노예제와 그 폐지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법·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본고는 이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어서 <메모리알 악트>의 설립과정에서 어떤 논쟁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 어떻게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억과 관련해서는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의 ‘문화적 기억’⁸⁾이 이 기념관의 건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에게 문화적 기억은 오랜 시간 동안 의미를 전승해오며 각 시대 사람들의 관심과 의도에 의해 창의적으로 재구성된 기억을 뜻한다. 또한 문화적 기억은 공적인 활동 중인 ‘기능기억’과 휴면 상태에 있는 ‘저장기억’의 상호보완 속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본고의 논의 대상인 노예제 기억과 <메모리알 악트>를 통해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예무역이나 노예제와 같은 특정한 집단 기억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나 매체로 재현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들루프와 서인도제도에서 <메모리알 악트>는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하여 과거와 대면해가는 문화적 기억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8) 사실 얀 아스만에 의해 문화적 기억이 먼저 소개되었는데, 그는 기억을 의사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구분했다. 의사소통적 기억은 언어로 전승되어 온 개인의 생애사와 관계된 기억이고, 문화적 기억은 의사소통적 기억들이 기억공동체의 의미구조화를 통하여 생성된 기억이라고 주장했다. 얀 아스만은 지배와 권력의 문제에 따라서 문화적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서, 공식기억과 관련시켜 문화적 기억을 논했다. 김학이,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 33집, 2005, 237-241쪽.

1. 노예제 폐지의 기억에서 노예제 기억을 향해

1998년은 프랑스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⁹⁾였다. 프랑스 정부는 대대적으로 기념행사 및 전시,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했다. 사실 노예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침묵해 왔던 프랑스지만,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에두아르 글리상Edouard Glissant, 마리즈 콩테Maryse Condé, 파트릭 샤무아조Patrick Chamoiseau등 카리브해 출신 해외영토 지식인들과 문인들이 20세기 중후반동안 다양한 비평양식과 문학작품들을 통해 그들 조상들의 역사, 즉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온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¹⁰⁾.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은 4월 23일 대통령 궁에서 직접 노예제 폐지 150주년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향후 5일 동안 프랑스 곳곳에서 공식 행사들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¹¹⁾. 국회에서는 노예제 폐지 150주년 기념이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생들의 그림, 텍스트, 편지, 포스터 전시회가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렸다. 파리교통공사RATP 재단의 후원으로 시행된 이 행사에는 55,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중에서 100여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국회의장이었던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가 개회식에 참석하

9) 본 챗터에서 언급되는 프랑스 노예제 폐지 150주년 공식행사들은 다음의 프랑스 문화부 문서에서 참조함: <http://www.culture.gouv.fr/culture/actual/abolition/metro.htm>

10) 1998년에 프랑스에서 유난히 카리브해와 관계된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기획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에서는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주말마다 카리브해 지역 출신 음악가들이 지역 특유의 음악들, 예를 들어 레게음악, 재즈, 크레올 뮤직 등을 선보이는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또한 그 해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의 주제를 ‘인권과 문화 혼종Droits de l’Homme et Métissage des cultures’라고 정하는 노력을 보였다. 문화부에 소속된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는 ‘도서 및 독서 축제fête du livre et de la lecture’ ‘카리브해 (도서) 읽기Lire la Caraïbe’, “카리브해의 문화 정체성”을 주제로 카리브해의 영어권, 스페인어권, 프랑스어권 작가 6명과 대담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행사도 열렸다.

11)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법령을 반포한지 정확히 150년이 흐른 날, 프랑스 정부는 팜테옹에서 그곳에 묻힌 빅토르 셸셰, 그레구아르 신부, 그리고 1794년 첫 번째 노예제 폐지가 선포되는데 기여했던 펠릭스 에부에Félix Eboué를 추모했다.

고 프랑스 전역에서 초대된 1,0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의 초청으로 과들루프Guadeloupe, 마르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Réunion, 프랑스령 기아나Guyane에서 온 프랑스 해외도 학생 200명이 개회식에 함께 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단순히 노예제 폐지만을 칭송하는 것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에게 프랑스의 노예제 역사에 대해 교육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노력¹²⁾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이어진 행사는 기념우표 발행식이었다.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기념우표를 디자인한 예술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티 출신 화가로서 1961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에르베 텔레마크Hervé Télémaque가 그 주인공이었다. 아이티와 프랑스 노예제는 상징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프랑스 식민지로서 1804년 최초로 독립을 이룬 곳이 아이티였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노예제를 철폐시킨 곳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노예제와 관련한 역사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이티이고, 노예 혁명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아이티 출신의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 역시 중요한 인물로 다루는 이유다.

국회는 또한 대중들에게 국회의사당을 개방하여 샹파네Champagney에서 국회로 보냈던 프랑스 최초 노예제 폐지 청원서, 노예제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국회 서류들과 오브제들을 전시했다. 1789년 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에 쥐라 산맥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샹파네의 주민들이 노예제를 폐지할 것을 청원함으로써 프랑스에서 노예제 폐지를 향한 물꼬가 터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샹파네 뿐 아니라 페센하임Fessenheim, 포르-드-주Fort-de-Joux는 노예제 관련 역사를 공유하는 장소로 함께 기념되었다. 세 마을이 100킬로미터 내에 서로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노예제 폐지 150

12) 1983년에 제정된 법령이 선포된 후 프랑스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매해 4월 27일에 한 시간 동안 노예제와 그 폐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왔다; Décret 88.1003, “le 27 avril de chaque année, une heure devra être consacrée dans toutes les écoles primaires, les collèges et les lycées de la République à une réflexion sur l’esclavage et son abolition.”

주년 기념행사를 이 세 마을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4월 26일에는 프랑스의 국무총리가 상파네의 <네그리튀드와 인권 회관 Maison de la Négritude et des Droits de l'homme>에 가서 기념행사를 거행했고, 거기에도 해외도 학생 200명이 참석해서 그 지역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페센하임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 이바지한 빅토르 셸쉐 아버지의 고향으로 셸쉐의 마을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셸쉐 관련 전시회를 열었다. 또 포르-드-주는 아이티의 투생 루베르튀르가 노예제 및 식민지 폐지, 흑인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1802년 프랑스로 붙잡혀 와서 투옥되어 있던 곳이다. 그는 1804년 아이티의 독립과 세계 최초 흑인 공화국의 탄생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포르-드-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처럼 1998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계획한 행사들은 대체적으로 노예제 폐지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노예제에 저항한 인물이나 역사로도 기억의 시선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라이다 아스만이 ‘문화적 기억’을 논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기억’과 ‘저장기억’이라는 두 가지 기억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온전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기능기억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이것은 기억하고 저것은 잊어버리면서 사건을 선별적으로 다루고”¹³⁾ 그 의미 틀을 재구성함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기능기억은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고, 공적인 의식, 축제, 명절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프랑스가 노예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은 바로 기능기억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노예제라는 반인륜적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어떤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자행되었는지를 공적으로 인식하고 직시하는 것보다 노예제를 폐지한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덜 불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적 기억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완전한 기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인식하는 길이 모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저장기억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특정한 의미구조의 자장에 포함되지 않는 방대한 지식의 총체로서 “무정형의 덩어리로 사용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기억의

13)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옮김, 그린비, 180쪽.

마당¹⁴⁾이다. 문학, 예술, 박물관, 기록물보관소가 저장기억을 대표한다. 프랑스가 노예제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 중에서 노예제의 희생자들과 노예제 폐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흑인들을 기리기 시작한 것은 저장기억을 일깨우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기능기억은 정치적인 요구와 관련되어 있거나 명료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저장기억은 문화적 기억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대립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아스만은 기능기억과 저장기억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상호 왕래를 하고, 저장기억이 기능기억을 보완, 수정함으로써 두 기억 간의 경계가 해체될 때 기억과 문화의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가 노예제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한 노예제 폐지 150주년 기념사업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프랑스 상원에서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기념했는데, 특히 상원 의원이었던 그레구아르 신부, 빅토르 쉘쎈, 그리고 가스통 모네르빌Gaston Monnerville¹⁵⁾을 기리는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빅토르 쉘쎈이 죽음을 맞이했던 파리 근교 우이유Houilles의 건물에 표지판을 붙여서 그를 추모하도록 했다. 상원에서는 국회와는 다르게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대에도 행해지는 노예제로부터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조는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노예제가 인신매매, 강제노동, 테러집단의 집단적 유괴 등을 통해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법이 노예제와 노예무역은 지나간 과거로, 현대판 강제노동은 퇴치되어야 할 범죄행위로 간주하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프랑스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노예무역과 노예제에서 프랑스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현대판 노예제로 논점을 옮기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프랑스타는 국가 이미지

14) *Ibid.*, 183쪽.

15) 마르티니크의 흑인 노예 자손이었던 가스통 모네르빌은 어린 나이부터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변호사이자 정치인의 인생을 살았다. 프랑스 상원 의장이 되어 1958년부터 1968년까지 활동한 흑인 최초의 상원 의장이었다. 노예의 후손이라는 점 외에는 노예제나 노예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프랑스 정치인이었다.

가 노예제를 시행했었지만 그 과오를 인정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나아가 인권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노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 프랑스 상원에서 이렇다 할 노예제 저항 정신에 근거한 저장기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노예제를 폐지시키는데 이바지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은 변화의 기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도록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정부가 노예무역과 노예제 때문에 고통당했던 흑인들의 역사와 노예제에 저항했던 인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여전히 노예제라는 역사를 직면하여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공적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야흐로 프랑스는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맞이 하면서 노예제 폐지의 기억에서 노예제 기억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이어 실현되는 사회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노예제 기억을 위한 사회·제도적 변화

<메모리얼 악트>가 과들루프에 건립되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가 공식적인 개관식에 참석했던 2015년 5월 10일¹⁶⁾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노예제도와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다. 노예제 폐지 150주년이었다던 1998년, 과들루프 출신으로 파리에서 유전학자로 활동하던 세르주 로마나(Serge Romana¹⁷⁾)는 <1998년 5월 23일 행진 위원회 La Comité Marche du 23 mai 1998¹⁸⁾ (CM98)>를 조

16)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기념관 개관식을 이날로 정했다. 이후 일반관객들이 기념관을 관람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7월 7일부터다.

17) 2017년 11월 23일, 20년동안 CM98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세르주 로마나가 퇴임하고 이어서 엠마뉘엘 고르디앵(Emmanuel Gordien이 위원장이 되어 2018년에 20주년 기념으로 예정되어 있는 5월 23일 행사를 주관하여 준비했다: <http://www.guadeloupe.franceantilles.fr/actualite/societe/emmanuel-gordien-remplace-serge-romana-460683.php>

18) 노예제 폐지 법령은 4월 27일에 공포되었으나, 실제로 이 법이 실행되어 노예들

직했다. CM98의 주도하에 4만 여 명의 사람들이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 Place de la République에서 나시옹 광장Place de la Nation까지 행진을 했는데, 그들은 식민지에서 노예제의 희생양이 되었던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이로써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예제 기억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노예제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흑인들의 무의식에 심층적으로 가라앉아 있던 저장기억이 점차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생성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아스만에 의하면, 기능기억과 저장기억은 “우리가 구석으로 촛불을 들고 갈 때 방의 나머지 부분은 어두워지는”¹⁹⁾ 관계와 같다. 여기에서 방은 저장기억을 촛불은 기능기억을 의미하는데, 부정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들은 기능기억인 촛불이 저장기억에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서로의 내적 차이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외부로 발현하는”²⁰⁾ 다양한 문화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노예제 희생자를 기념하는 행사는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던 행사와 점차 동일선 상에서 인식되기에 이른다. 1998년 이후 파리에서는 매년 5월 23일 CM98 주도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2008년 총리였던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이 공문을 통해 이 추모 행사를 공식화 했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에는 해외도 실질적 평등법 la loi de l'égalité réelle Outre-mer²¹⁾을 통해 5월 23일을 ‘노예제 희생자 추모 국경일 Journée nationale en hommage aux victimes de l’esclavage’로 지정하였다.

노예무역과 노예제 후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관심과 무지함을 일깨운 사회 운동이 CM98의 추모 행진이었다면, 곧이어 법적인 면에서 이 문제에 다가선 인물이 크리스티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다. 1998년 12월 22일 프랑수아 기아나의 국회의원이었던 토비라가 프랑스 의회에 “반인류적 범죄로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하는”²²⁾ 새로운 법을

이 자유를 얻기 시작한 것은 1848년 5월 23일 마르티니크에서 시작되었고 과들루프에서는 5월 27일에 노예들의 해방이 이루어졌다.

19) 알라이다 아스만, *Op. Cit.*, 557쪽.

20) Niethammer, “Die postmoderne Herausforderung”, p.48; 알라이다 아스만, *Op. Cit.*, 192쪽에서 재인용.

21) Loi n° 2017-256 du 28 février 2017, article 75: <http://www.affaires-publiques.org/textof/TO/17/12063-0217.htm>

발의했다. 그리고 2001년 5월 10일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반인류적 범죄로 인정하게 된다.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의 첫 번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공화국은 15세기부터 아프리카인들, 아메리카인디언들, 마다가스카르인들 그리고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 인도양에서 자행된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과 인도양의 노예무역 및 노예제가 반인류적 범죄임을 인정한다.”²³⁾

이어지는 두 번째 조항에서는 이런 노예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와 인문학과 역사적 시각에서의 노예제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 번째 조항에는 프랑스에서 공포된 노예제에 관한 법을 유럽의회에 소개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적으로 노예제 폐지 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네 번째 조항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반인류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장소를 제안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⁴⁾.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반인류적 범죄로서의 노예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법률의 네 번째 조항에 의거한 위원회가 조직된다. 2004년²⁵⁾ 법령

22) “tendant à la reconnaissance de la traite et de l’esclavage en tant que crime contre l’humanité”: <http://www.gouvernement.fr/partage/9151-video-provisoire-reconnaissance-de-l-esclavage-et-de-la-traite-en-tant-que-crime-contre-l-humanite>

23) “La République française reconnaît que la traite négrière transatlantique ainsi que la traite dans l’océan Indien d’une part, et l’esclavage d’autre part, perpétrés à partir du XVe siècle, aux Amériques et aux Caraïbes, dans l’océan Indien et en Europe contre les populations africaines, amérindiennes, malgaches et indiennes constituent un crime contre l’humanité.”: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05369& categorieLien=id>

24) 마지막 조항인 다섯 번째 조항은 1881년 7월 29일에 공포된 법 조항의 내용 중 언론과 관계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네 개의 조항과 구별된다.

25) 2004년은 아이티가 흑인 혁명을 일으켜 프랑스로부터 독립(1804년)한지 200년이 된 해였다. 유엔은 2004년에 <세계 반노예투쟁과 노예해방 기념의 해>로 명명하고 노예제와 관련된 많은 사업과 행사를 추진했다: 손정훈, 「유네스코의

n° 2004-11에 의해 창설된 ‘노예제도 기억을 위한 위원회Le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esclavage(CPME)’로 명명된 이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었고, 과들루프 출신 작가 마리즈 콩데Maryse Condé를 초대 위원장(2004-2008)으로 임명했다. CPME의 논의를 거쳐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대통령이 2006년부터 5월 10일을 “노예무역, 노예제 및 노예제 폐지 기억 국경일Journée nationale des mémoires de la traite, de l’esclavage et de leur abolition”²⁶⁾로 지정하여 매년 프랑스 전역에서 “노예들에 대해 회상하고 노예제 폐지를 기념”²⁷⁾한다고 밝혔다. 이 국경일을 어떤 날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CPME의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위원장이었던 마리즈 콩데는 프랑스 국제 라디오방송국Radio France Internationale(RFI)와의 인터뷰에서 왜 5월 10일로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념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CPME에서 논쟁이 특히 격렬했었습니다. 1998년 5월 23일 파리에서 행진을 실행했던 4만 명의 서인도 제도 사람들은 그 기념할 만한 시위의 날이 노예제 기념 국경일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본토 사람들과 노예제의 희생자들이었던 해외 공동체가 동시에 결집되는 보편적인 날짜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2월 4일과 4월 27일,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노예제 폐지일도 배제 시켰습니다. 1794년 2월 4일을 배제 시킨 것은 1802년에 노예제가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제 2공화국 하에서 식민지의 노예제를 종결시킨 1848년 4월 27일의 최종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프랑스 소유의 식민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약속된 해방 과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토비라 법이 채택된

“노예루트” 프로젝트와 아프리카 문화관광, 『불어문화권연구』 Vol.17, 2007, p.49.

26) 2017년 2월 28일에는 “노예무역, 노예제 및 노예제 폐지 기억 국경일”이 법령으로 반포되었다. 1983년에 제정된 “노예제 폐지 기념 관련 법령Loi n° 83-550 du 30 juin 1983 relative à la commémoration de l’abolition de l’esclavage”을 수정한 이 법령으로 5월 10일은 “노예무역, 노예제 및 노예제 폐지를 기억하기 위한 국경일”로, 5월 23일은 “노예제 희생자 추모 국경일”이 되었다.

27) “Ainsi que l’indiqua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ans son allocution du 30 janvier 2006, le 10 mai “honore le souvenir des esclaves et commémore l’abolition de l’esclavage.”: <http://www.cnmhe.fr/spip.php?rubrique45>

2001년 5월 10일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노예제를 반인류적 범죄로 인식하는 이 법의 채택은 노예무역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전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노예들이 희생자로 간주되었습니다.”²⁸⁾

이후 CPME는 2009년 법령 n° 2009-506에 의해 ‘노예제 역사와 기억을 위한 위원회Le Comité pour la mémoire et l’histoire de l’esclavage(CPMHE)’로 개명했으며, 2013년 5월 6일 ‘노예제 역사와 기억을 위한 국가 위원회Le Comité national pour la mémoire et l’histoire de l’esclavage(CNMHE)’로 승격되고 15명의 위원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 “1° 기념;
- 2° 노예무역과 노예제, 노예제 폐지 역사와 관계된 국내외 행사;
- 3° 이 주제와 관계된 기억의 장소, 기관, 박물관, 해석 센터, 연구 조직 확인 및 국외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확인;

28) “Les débats au sein du CPME furent particulièrement houleux pour décider de la date de la commémoration. Les 40 000 Antillais qui avaient défilé à Paris le 23 mai 1998, réclamaient que la date de cette manifestation mémorable devienne la journée nationale de commémoration de l’esclavage. Cette proposition n’a pas été retenue, car nous cherchions une date à portée universelle, qui réunisse à la fois les Français métropolitains et les communautés d’outre-mer qui ont été victimes de l’esclavage. Nous avons écarté également le 4 février et le 27 avril, dates respectives de la première et de la seconde abolition de l’esclavage en France. On a écarté le 4 février 1794, car l’esclavage a été rétabli en 1802. Le décret définitif mettant fin à l’esclavage dans les colonies françaises date du 27 avril 1848 sous la IIe République, mais le statut colonial des possessions françaises a été maintenu. le processus de libération engagé était incomplet dans les deux cas et c’est pourquoi nous avons préféré à ces deux dates le 10 mai 2001, date de l’adoption de la loi Taubira. De l’aveu de tous, l’adoption de cette loi qui reconnaît l’esclavage en tant que crim contre l’humanité constitue un véritable tournant dans le réflexion sur la traite négrière. Pour la première fois, l’esclave africain est considéré comme une victime.”: Tirthankar Chanda, “Maryse Condé: “La traite et l’esclavage marginalisés dans l’imaginaire française””, *Radio France Internationale*, le 10 mai 2016: <http://www.rfi.fr/afrique/20160510-maryse-condé-traite-esclavage-commemorations-10-mai-memorial-acte-antilles>

4° 노예무역과 노예제 및 노예제 폐지 역사와 관계된 박물관, 유산, 기록 보관된 문화유산을 대중, 특히 취학연령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한 자료 확보와 관심 조성 및 보급 활동;

5° 연구, 대중화, 공유된 기억을 조성하기 위해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관계된 국가들과 유럽연합 국가들에 공동 발의;

6°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의 기억과 관련된 여러 작업과 자료 수집.”²⁹⁾

CNMHE의 위원들은 (역사)연구자들, (노예제)전문가들, 문화 관계자들, 지식인 단체나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다. 노예제나 그것의 폐지에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하고, 프랑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노예제와 관련해서 기억될 장소, 박물관, 정부기관 및 연구 기관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또 노예제 역사와 폐지에 관한 여러 문화유산들을 정규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CPME로 시작된 이 위원회는 점차 위원회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단순히 프랑스 국내에서 뿐 아니라 유럽 연합, 나아가 다른 국가들의 노예제에 대한 연구 및 정보를 공유하여 대중들의 이해를 높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5명으로 구성된 CNMHE 위원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작업과 수집 및 연구를

29) 1° Les commémorations;

2° Les événements nationaux ou internationaux liés à l'histoire de la traite, de l'esclavage et de leur abolition;

3° L'identification des lieux de mémoire, des institutions, des musées, des centres d'interprétation et des structures de recherche relatifs à ces thèmes ainsi que leur mise en réseau, y compris avec leurs homologues étrangers;

4° Les actions de sensibilisation et de diffusion et les ressources documentaires pour mieux faire connaître l'histoire de la traite, de l'esclavage et de leur abolition, leur patrimoine archivistique et muséal, leur héritage, auprès du public le plus large, en particulier du public scolaire;

5° Les initiatives communes aux Etats de l'Union européenne, et aux autres Etats concernés par la traite et l'esclavage, afin de favoriser les recherches, leur vulgarisation, et des commémorations partagées;

6° Le recueil d'éléments et les travaux de toute nature liés à la mémoire de la traite et de l'esclavage.": <http://www.cnmhe.fr/spip.php?rubrique52>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위원회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욱 가중된다. 2018년 CNMHE 위원회의 예산이 약 250만(정확히는 2,525,000) 유로³⁰⁾임을 감안할 때 노예제와 관계된 유산이나 자료 수집 및 학술활동을 과연 얼마만큼 행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노예제와 노예무역, 그리고 폐지에 관한 부분은 수많은 해외영토 주민들이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와 원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프랑스로서는 다른 나라에 그 유래가 없는 법률을 정하여 노예제도가 반인류적 범죄였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부분을 더하고 학문적 연구의 병행을 통해 자신들이 쌓길 이익 역시 계산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과들루프에 ‘서인도제도 노예제도와 노예무역 기억 및 표현 센터’인 <메모리알 악트>를 개관하여 일말의 결과물을 제시했다.

3. <메모리알 악트>의 건립과 논란의 쟁점, 그리고 의의

과들루프에서 결성된 국제흑인위원회Le Comité International des Peuples Noirs(CIPN)³¹⁾가 1998년 5월 27일 과들루프의 노예해방 150주년 기념일에

30) 프랑스의 해외부Ministère des Outre-Mer 2018년 전체예산은 20억 2천만 유로였는데, 그 중 0.125%에 해당하는 252만 5천 유로를 CNMHE 위원회 예산으로 책정했다: <http://outremer360.com/politique/budget-outre-mer-2018-un-budget-en-faveur-du-developpement-territorial-et-de-la-jeunesse/>;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31) ‘국제흑인위원회CIPN’는 뤽 레네트Luc Reinette가 1992년에 창설한 단체로서, 노예제도라는 범죄에 대한 재인식, 범죄에 대한 사죄, 그리고 화해라는 세 가지 모토를 내걸었다. 여기에서 사죄에는 재정적 보상이라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예제도에 대한 교육과 아프리카에서 탈취해 왔던 오브제들의 반환까지도 요구하는 대체적으로 급진성을 띠는 단체이다.: Olivia Mongin, “Mémorial ACTe à Point à Pitre: Retour sur la création de la centre caribéen d’expressions et de mémoire de la traite et de l’esclavage”, *Africultures*, le 5 mai 2015: <http://africultures.com/memorial-ac-te-a-pointe-a-pitre-12946/>

실질적인 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메모리알 악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CM98이 파리에서 노예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진을 주도하던 때와 같은 시기에 과들루프에서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기억하는 기념관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토비라 법이 제정된 후 2004년에는 과들루프 레지옹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2007년 5월 레지옹 의회 운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에서 기념관 설립 승인을 했다. 2008년 5월 27일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메모리알 악트>는 2015년 5월 10일, 프랑스 대통령과 아프리카 및 서인도제도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서인도제도 노예제도와 노예무역 기억 및 표현 센터’가 되었다.

이 기념관은 과들루프의 두 개의 주 도(島) 중 하나인 그랑드 테르Grande Terre의 중심도시인 프앵타 피트르Pointe-à-Pitre에 위치한다. 노예제도를 기억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다르부시에Darboussier 아비타시옹Habitat³²)과 설탕공장 부지가 기념관의 부지가 되었다. 다르부시에 설탕공장은 1869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해서 1980년 공장을 닫을 때까지 과들루프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다. 이후로 프앵타 피트르 시(市) 소유의 황무지였는데, 레지옹으로 반환된 후 <메모리알 악트>³³)를 건축하게 된 것이다.

32) 아비타시옹은 플랜테이션보다 규모가 작은 대단위 농장을 가리킨다. 아비타시옹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인인 백인의 문화가 노예에게 전달되기 쉬웠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삶과 문화가 충돌하고 섞여 크레올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며 크레올 문학 및 크레올리테의 모태가 되었다; 송진석, 「크레올리테 혹은 불어권 서인도제도의 문화정체성」, 『불어문학연구』, vol.56, n2, 2003, pp.959-990; 송진석, 「크레올리테와 이야기꾼-파트릭 사무아조의 『솔리보 마니피크』 연구」, 『불어문화권연구』, vol.17, 2007, pp.74-106; 줄고, 「카리브해 지역의 혼종적 정체성: 마리즈 콩테의 *Victoire, les saveurs et les mots*를 중심으로」, *Op. Cit.*, p.246에서 재인용.

33) 1.2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7,800m²의 규모를 가진 기념관이 들어서 있으며, <메모리알 악트>는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중앙 홀이 있는데, 이곳에서 과들루프를 포함한 서인도제도의 수많은 가계도를 확인할 수 있다. 1,700m²의 상설 전시관, 700m²의 기획 전시관이 이 건물에 위치해 있다. 첫 번째 건물과 두 번째 건물 사이에는 추모 공간인 대형 금속 아치가 있고 이를 통해 두 건물이 연결된다. 두 번째 건물에는 256석이 완비된 400m²의 다목적 홀과 레스토랑-비스트로가 자리잡고 있다. 방문객들은 기념관 부지에서 인도교를 건너 다르부시에 사탕수수 아비타시옹이었던 모른느Morne 지역에서

서인도제도의 노예무역의 출발점이 사탕수수와 관련된 노동력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예제도 기억 기념관이 들어서기에 매우 적절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노예무역의 근거지가 되었던 사탕수수 농장 아비타시옹의 흔적은 이곳에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19세기 말부터 있었던 설탕공장도 30년 이상 황무지화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설탕공장의 상징적인 건물을 남겨두고 그곳에 노예제도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자체만으로도 노예제에 있어서 역사적 상징성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오랫동안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과두루프 민중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설탕산업 유적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설탕공장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노예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기념관이 들어서 후 이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노예제와 사탕수수 아비타시옹에 대해 더 많은 대중이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설탕공장 부지를 기념관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노예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의 장소를 없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소와 기억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장소는 기억을 구체적으로 위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억을 공고히 하고 증거 할 뿐 아니라 개인과 시대, 그리고 문화의 지속성을 구현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장소의 기억’이라는 표현을 통해 장소가 “기억의 주체, 기억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인간의 기억을 초월하는 기억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³⁴⁾고 주장한다. ‘장소의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장소가 기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장소 안에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메모리얼 악트>가 건립된 다르부시에라는 장소는 설탕공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로 이동해서 2.2헥타르에 달하는 숲을 산책할 수 있다: <http://memorial-acte.fr/le-memorial-acte/plan-et-espaces/>

34) 알라이다 아스만, *Op. Cit.*, 410쪽.

노예제와 사탕수수 재배 노예노동자 역사와는 단절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곳에는 흔적의 형태로 설탕공장의 물질적 잔재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노예제 기념관이라는 기억 매체가 건립됨으로써 노예제 “기념 장소”³⁵⁾가 된다. 이 기념 장소는 기억하는 사람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 조정되면서 개인의 고유한 체험을 생산한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알 악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된 과거의 흔적을 재생하고 과거의 텍스트와 접촉함으로써 각자의 방식대로 상상하고 기억하는 문화적 기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 기념관인 <메모리알 악트>의 건립에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은 재정 문제였다. 2013년에 완공될 것을 목표로 시작된 건축이 2년이나 연장된 것에는 재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 공사는 과들루프 레지옹과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이 공동출자하여 완공되었다. 사용된 총 금액은 8,300만 유로로 확인되며, 그 중에 5,000만 유로가 국가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³⁶⁾.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유럽지역발전기금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égional(FEDER)’에서 <메모리알 악트>의 건립을 위해 1,700만 유로를 지원받은 것인데, 이는 총 건립 예산의 20.5%에 해당하는 액수다³⁷⁾. 그런데 유럽연합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 기념관 관련 지원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프랑스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메모리알 악트> 홈페이지에도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총 8,300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국가와 FEDER, 과들루프 레지옹이 분담했다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디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정확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일간지들과 유럽연합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3,300만 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했고, 나머지 3,300만 유로를 과들루프 레지옹에서 분담한 것이어야 하

35) *Ibid.*, 425-434쪽.

36) <http://www.guadeloupe.franceantilles.mobi/actualite/politique/le-memorial-acte-en-cour-de-finition-319619.php?page=1>;
Antoine Flandrin, “Mémorial ACTe en Guadeloupe: une inauguration en grande pompe”, *Le Monde*, le 10 mai 2015: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5/05/10/memorial-acte-en-guadeloupe-une-inauguration-en-grande-pompe_4630783_3224.html

37)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r/projects/france/acte-memorial-to-inform-and-educate-on-the-slave-trade

는데 그 부분이 석연치 않은 것이다³⁸⁾.

이처럼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 충당의 모호함 때문에 <메모리알 악트>가 완공 단계에 이르면서 과들루프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과들루프 레지옹에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밝힌 금액이 8,300만 유로라고 했을 때 기념관을 짓기 시작하던 시점에는 5,000만 유로로 예상했었다. 그런 엄청난 액수를 청년층 실업률이 60%에 육박하는 과들루프에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했다면 실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며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것이다. 향후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으로 4백만 유로를 예상했고, <메모리알 악트>의 자립도가 40%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들은 관광객 수가 증가되어야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관광산업 자체가 과들루프 국내총생산의 4-5%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며 기념관으로 인해 갑자기 많은 관광객들이 과들루프로 몰려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과들루프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제라는 집단적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규명하고 되물어보는 과정 없이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으로 얼룩진 그들의 역사도 사라질 것이고, 과거가 사라진 자들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를 살아내고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과거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문화이고, 사원, 묘비, 기념비, 박물관, 기념관, 축제 등을 통해 기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메모리알 악트>와 같은 기념관을 통해 오랫동안 망각하도록 유도되었던 노예제 역사가 개인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과거를 현재화하고, 또 서로 다른 과거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

38) 독립 언론으로서 최근 프랑스에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미디어파르 mediapart 사이트에 의하면, 8,3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재정을 과들루프 레지옹이 감당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그로 인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Michelle Guerci, "Mémorial ACTe, Code Noir: Enquête sur une Guadeloupe meurtrie et divisée", *Médiapart*, le 8 mai 2015: <https://blogs.mediapart.fr/michelle-guerci/blog/080515/memorial-acte-code-noir-enquete-sur-une-guadeloupe-meurtrie-et-divisee>

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공간을 단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문화 마케팅적 시각이 아니라,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 회복시킨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모리알 악트>를 바라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또 다른 논쟁의 중심에는 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던 단체인 CIPN의 수장 퓌 레네트Luc Reinette가 있다. 그는 <메모리알 악트>의 학술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과들루프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는 개관식에 참가하는 대통령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단지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모리알 악트>가 화해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죄가 필요하다³⁹⁾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또한 과들루프 사람들 역시 이 기념관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에게 노예제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리즈 콩데는 아프리카의 미개인들이었던 흑인들이 노예제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다는 시각으로 이루어진 서양의 교육 때문에 자신의 부모 세대까지 이런 통념이 용인되었고, 그럼으로써 수치스러운 조상의 역사에 대해 아예 발설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⁴⁰⁾. 콩데의 이러한 설명은 프랑스 정부가 오랫동안 노예제도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비뚤어졌고, 아프리카 출신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빛나간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얀 아스만이 지배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지배층과 기억의 동맹’, 그리고 ‘지배층과 망각의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상기시킨다⁴¹⁾. 과들루프를 비롯한 노예무역의 피지배 계층들과 그 후손들이 오랫동안 노예제 역사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프랑스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요소인 노예제를 망각하게 하는 동시에,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억, 즉 노예제를 폐지한 자

39) 레네트의 주장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죄 문제는 독립주의자로서의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 Tirthankar Chanda, *Op. Cit.*,

41) Jan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en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1992, pp.70-73; 윤미애,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서울이야기」, 『카프카연구』 제 17집, 243쪽에서 재인용.

신들의 선한 역량에 방점을 둔 기억과 동맹했다는 것을 부각시킨 부분이 그렇다. 그러므로 레네트의 주장은 자신들이 조상들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찌됐든지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개관식에서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사죄가 2001년에 제정된 토비라 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초·중·고등학교 역사책⁴²⁾에 노예제에 대한 내용을 넣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망각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사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명했다⁴³⁾. 그러나 레네트와 같은 입장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죄를 하지 않으면서 법을 제정한 것이라든가, 역사 교과서에서 노예제를 다루게 한 것 등만 언급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잘못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사죄가 아닌 이런 저런 제도를 언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메모리알 악트>는 단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후세에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세운 건축물에 불과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죄하면서 기념관을 건립한다든가, 혹은 사죄의 대가로 현재 프랑스의 해외영토로 남아 있는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는 행보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노예제에 대해 사죄를 하느냐가

42) 교육적 측면에서 <메모리알 악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관하면서부터 기념관은 과들루프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다양하게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생을 위해 가이드가 설명해주며 기념관을 돌아보는 40분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가계도 센터 Centre Généalogie에서는 성(姓)을 근거로 가계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 20분간 설명하고 이후 중·고등학생들이 가계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기념관을 관람하는 경로도 교사의 결정에 따라 ‘노예 되기 être esclave’, ‘형태와 기억 formes et mémoires’, ‘문화 중첩 superpositions culturelles’과 같이 세 가지 루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노예제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들루프와 카리브해 지역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메모리알 악트>는 노예제 역사 뿐 아니라 카리브해의 역사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고 있다. 도미니크 폴로가 지적한 것처럼 최근 ‘교육과 연구의 박물관’ 개념, 즉 교육과 연구의 장이 되는 박물관(기념관)이 부상하고 있는데 <메모리알 악트>에서 그러한 교육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http://discours.vie-publique.fr/notices/157001286.html>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레네트에 의해 제기된 또 다른 논란은 노예제와 삼각무역을 기억하고 표현한다는 기념관의 상설전시관의 기획 의도에 대한 부분이었다. 상설전시관이 노예무역이 행해지던 당시 노예 거래에 앞장섰던 아프리카의 왕들, 즉 흑인들의 책임을 전면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몇몇 아프리카 왕들이 그런 일에 동참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치 노예무역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해 자행된 것으로 일반화 시키고 있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동시에 상설 전시관에서 노예 해방에 있어서는 백인 프랑스인들의 기여가 강조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결국 상설전시관은 과들루프의 구원이 프랑스 및 가톨릭에 의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식 동화주의의 과학적·미학적 버전의 재탕임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메모리알 악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과들루프 민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저장되어 전승된 기억들이 백인 기독교 중심으로 수립된 기능기억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메모리알 악트>가 다시 한 번 그들의 과거가 왜곡되는 장소로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가며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프랑스의 기억문화는 점차 노예제 폐지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에서 노예제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겪었던 삶의 역사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1998년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물결은 고통의 역사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해외영토 대중들의 사회운동에 의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해외영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의 뿌리가 되는 노예제에 대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점차 해외영토가 지닌 외적인 부분 뿐 아니라 내면의 상

처를 보듬어 안고 그것을 사회제도와 문화예술을 통해 기억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1년 토비라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로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프랑스 본토 및 해외영토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

과들루프에 건립된 <메모리알 악트>는 노예제라는 숨기고 싶었던 역사를 일깨우고 그것을 문화예술의 장⁴⁴⁾으로 승화시키려는 정부와 레지옹의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빅토랭 뤼펠은 <메모리알 악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기념관이 ‘과들루프의 영혼 l’âme de la Guadeloupe’⁴⁵⁾이 되어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들루프인들에게 <메모리알 악트>는 오랜 세월동안 노예제도에 대해 무지했고 수치스럽게만 여겼던 역사를 직면함으로써 자신들의 비틀린 정체성, 즉 백인의 도움에 기대어 살 수 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열등감으로 점철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⁴⁶⁾. 거기에 더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뿌리 뽑힌 조상들의

44) <메모리알 악트>는 과들루프와 카리브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이끄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념관은 상설전시관과 가계도 센터를 통해 노예제와 노예무역 역사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는 한편, 기획 전시관과 다목적 홀을 통해 음악, 사진, 댄스, 영화, 문학, 연극 등 장르를 막론한 문화 행사 및 학회를 개최한다. 2015년 5월에 개관한 이후로, ‘피아노 주위에서의 첫 만남 Première Rencontre autour du piano’라는 주제로 피아노 연주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며, 과들루프에서 2014년부터 시작된 ‘과들루프 인권 영화 페스티벌 Festival du Film des droits de l’homme de Guadeloupe’을 <메모리알 악트>에서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하기도 한다. 2017년 8월에는 해외영토 출신 시네아스트들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여러 연극작품과 댄스 및 발레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메모리알 악트>는 과들루프의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 박물관 역사에서는 퐁피두 센터 Centre Pompidou를 필두로 박물관의 학제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데, 박물관-기념관 <메모리알 악트>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이라는 역사를 기억한다는 주제 의식으로 건립되었지만, 향후 프랑스 국내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45) Atoine Flandrin, “Cinq choses à savoir sur le Mémorial ACTe, en Guadeloupe”, *Le Monde*, le 10 mai 2015: http://www.lemonde.fr/afrrique/article/2015/05/10/cinq-choses-a-savoir-sur-le-memorial-acte-en-guadeloupe_4630682_3212.html

가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문헌과 증명서들을 수집하여 열람케 하는 이 기념관의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체성 찾기를 실현시킨다는 점을 높이 살만하다. 또한 문화예술행사나 전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된 과들루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진작시킬 장소로서 향후 <메모리알 악트>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기념관이 지배계층의 시점에서 선별된 기능기억으로 채워지지 않고, 피지배계층인 각 개인들에 의해 전승된 저장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예제가 폐지된 후 150여년이 흐르는 동안 이어졌던 왜곡된 노예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체험하지 못한 기억을 문화적 기억을 통해서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 기억으로 인식하려는 집단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기억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메모리알 악트>가 새로운 문화적 기억과 문화 정체성을 양산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과들루프나 서인도제도 지역 뿐 아니라 프랑스 본토에서도 항구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기존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술 연구 또한 대두된다. 기대와 비판의 우려 속에서 개관한 <메모리알 악트>에서 어떤 상설전시 세노그래피와 컬렉션이 소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노예제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46)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pp.378-379.

■ 참고문헌

비평서와 논문(보고서)

- Sous la dir. de Philippe Poirrier et René Rizzardo, *Une ambition partagée?: La coopération entre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1959-2009)*,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2009.
- Xavier Greffe et Sylvie Pflieger, *La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5.
- Protocole d'accord: Portant création d'un fonds d'aides aux échanges artistiques et culturels pour l'outre-mer*, Ministère des outre-mer et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le 17 février 2017.

- 도미니크 폴로, 『박물관의 탄생』, 김한결 옮김, 돌베개, 서울, 2014.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옮김, 그린비, 서울, 2011.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서울, 2005.

- 김학이,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 33집, 2005.
- 박주식, 「크레올 시학: 에두아르 글리상과 카리브 군도의 탈식민 문화 정체성」, 『비평과 이론』, 제21권 3호, 2016 가을.
-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정책」, 『프랑스 문화연구』 제 20집, 2010.
- 손정훈, 「유네스코의 “노예루트” 프로젝트와 아프리카 문화관광」, 『불어문화권연구』 Vol.17, 2007.
- 송진석, 「크레올리테 혹은 불어권 서인도제도의 문화정체성」, 『불어불문학연구』 Vol.56, n2, 2003.
- _____, 「크레올리테와 이야기꾼-파트릭 샤무아조의 『솔리보 마니피크』 연구」, 『불어문화권연구』 Vol.17, 2007.
- 이가야, 「카리브해 지역의 혼종적 정체성: 마리즈 콩테의 *Victoire, les saveurs et les mots*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48집, 2014.
- _____, 「네그리튀드에서 앙티아니테로: 마리즈 콩테의 자서전 읽기」, 『불

어불문학연구』 106집, 2016.

진인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학논집』 제 59집, 2007.

프랑스 및 과들루프 정부(후원) 사이트

<http://discours.vie-publique.fr/notices/157001286.htm>

<http://www.culture.gouv.fr/culture/actual/abolition/metro.htm>

<http://www.affaires-publiques.org/textof/TO/17/12063-0217.htm>

<http://www.gouvernement.fr/partage/9151-video-provisoire-reconnaissance-de-l-esclavage-et-de-la-traite-en-tant-que-crime-contre-l-humanit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05369&categorieLien=id>

<http://www.cnmhe.fr/spip.php?rubrique45>

<http://www.cnmhe.fr/spip.php?rubrique52>

<http://memorial-acte.fr/le-memorial-acte/plan-et-espac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r/projects/france/acte-memorial-to-inform-and-educate-on-the-slave-trade

https://www.ac-guadeloupe.fr/www/le_service_educatif_du_macte_au_service_des_enseignants

언론사 사이트

Bastien Hugues, “Pointe-à-Pitre est paralysée, vide, morte...”, *Le Figaro*, le 18 février 2009: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09/02/18/01016-20090218AR_TFIG00477-guadeloupe-la-vie-est-paralysee-vide-morte-.php

Tirthankar Chanda, “Maryse Condé: “La traite et l’esclavage marginalisés dans l’imaginaire française””, *Radio France Internationale*, le 10 mai 2016: <http://www.rfi.fr/afrique/20160510-maryse-conde-traite-esclavage-commemorations-10-mai-memorial-acte-antilles>

<http://www.guadeloupe.franceantilles.fr/actualite/societe/emmanuel-gordien-replace-serge-romana-460683.php>

Olivia Mongin, “Mémorial ACTe à Point à Pitre: Retour sur la création de

la centre caribéen d'expressions et de mémoire de la traite et de l'esclavage”, *Africultures*, le 5 mai 2015: <http://africultures.com/memorial-acte-a-pointe-a-pitre-12946/>

Antoine Flandrin, “Mémorial ACTe en Guadeloupe: une inauguration en grande pompe”, *Le Monde*, le 10 mai 2015: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5/05/10/memorial-acte-en-guadeloupe-une-inauguration-en-grande-pompe_4630783_3224.html

<http://www.guadeloupe.franceantilles.mobi/actualite/politique/le-memorial-acte-en-cours-de-finition-319619.php?page=1>

Michelle Guerci, “Mémorial ACTe, Code Noir: Enquête sur une Guadeloupe meurtrie et divisée”, *Médiapart*, le 8 mai 2015: <https://blogs.mediapart.fr/michelle-guerci/blog/080515/memorial-acte-code-noir-enquete-sur-une-guadeloupe-meurtrie-et-divisee>

Atoine Flandrin, “Cinq choses à savoir sur le Mémorial ACTe, en Guadeloupe”, *Le Monde*, le 10 mai 2015: http://www.lemonde.fr/afrique/article/2015/05/10/cinq-choses-a-savoir-sur-le-memorial-acte-en-guadeloupe_4630682_32_12.html

❖ ABSTRACT

Memory of Slavery in France and the "Mémorial ACTe" in Guadeloupe

Lee, Ka-ya

The culture of memory in France regarding slavery and slave trade has slowly been expanding its horizons: from limited perspective focusing on abrogation of slavery to inclusion of discussion on real experiences and suffering of African slaves. This change has been particularly noticeable since the 150th anniversary of abrogation of slavery in France in 1998. It was the year that citizens of French overseas territories that had internalized this painful and shameful history of suffering formed a visible social movement.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French government has also demonstrated consistent, proactive and prompt response to discussions of issues rooted in slavery in overseas territories, wherein slavery is the root of fundamental problems. In particular, when the Taubira Law (2001) was passed in the Senate, the Committee for the Memory of Slavery was established. This committee has since contributed to better assessment and understanding of French history of slavery and slave trade. Such was the profound as well as significant change in public perception as well as in legal and social aspects that culminated in the 2015 establishment of Mémorial ACTe, Caribbean Centre of Expression and Memory of Slavery and the Slave Trade in Guadeloupe.

Reflecting on those historic moments in recent French history, this paper examines major debates in French society regarding establishment of the Mémorial ACTe. It assesses how Aleida Assmann's "cultural memory" was cre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Mémorial ACTe and how it has contributed to the new cultural identity of French overseas territories.

Key Words : Slavery, abrogation of slavery, Mémorial ACTe, cultural memory,
Aleida Assmann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